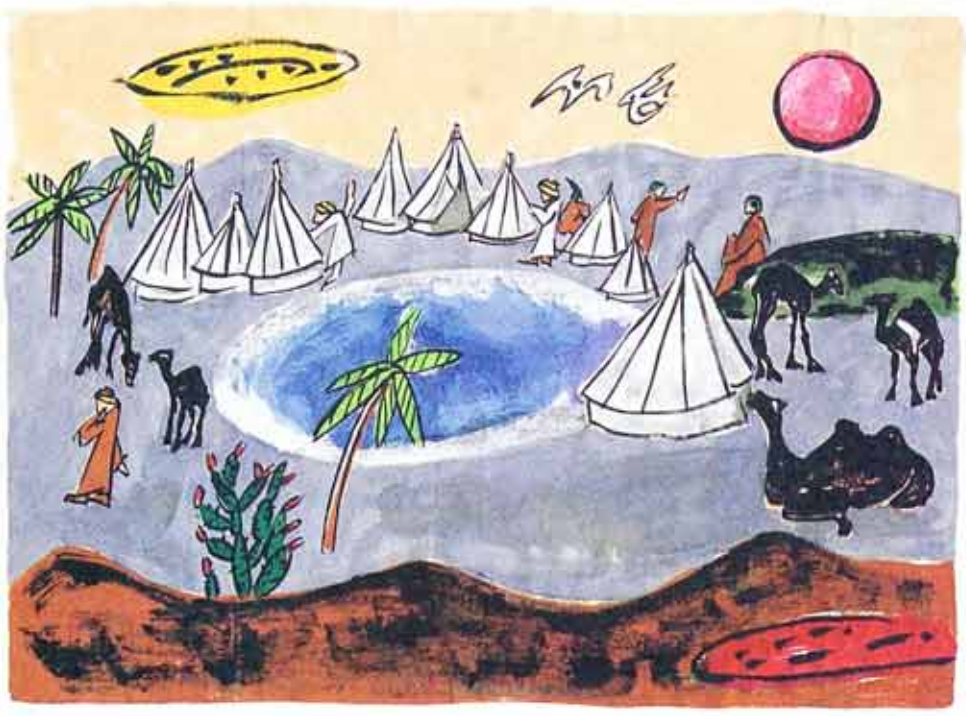
고은 불교대하소설



하룻밤의 별

만화 합두 그리고 불이들을 연행하는 낙타부리들은 천산남로 일대의 동서를 오고가는 대상(隊商)들을 습격해서 갖가지 진귀한 물화를 빼앗는 강도집단이었다.

아마도 각 거점에 배속된 무리까지 합친다면 1백명의 우락부락한 사람들과 낙타 1백필 이상과 주력(走力)이 좋은 말 수십필이 있는 모양이다. 이곳의 무리는 20명의 낙타강도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강도가 아니다. 그들이 노리는 대상들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한번 털린 자들은 2년이상은 그대로 놓아둔다.

그럴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고적이나 골동품에 관한 뛰어난 감식자(鑑識者)가 있어서 사막의 도처에 파묻혀 있는 옛 시대의 대상들이 죽었던 일대를 발굴해서 주로 페르시아나 터키족 그리고 이태리나 스페인사람 부자들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같은 누란 일대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잡축을 통해서 뒷날 불란서나 영국의 문화 탐험가들이 이 일대를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는지 모른다.

이들 낙타강도들의 일부는 청나라에서 한족(漢族)의 주권을 따벌이다가 중앙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 변새(邊塞)일대로 도망했던 사람이거나 최소한 청나라나 제정(帝政) 러시아의 국경지대의 몽골족이나 터키족 그리고 누란 일대의 소수민족들이 어울려 있지만 서로 인종차별 따위를 하지 않는 화목이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여러 지역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통역을 맡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번 세 사람을 각각 낙타에 태워오면서 불이를 맡은 강도가 바로 고대인도의 범어(梵語)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그는 불이가 불교승려에 가까운 신분임을 알게 되자 당장 수미산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여보시오! 나도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힘을 전하는 몇가지 통로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오. 통로란 범어로 나디라고 하던가. 오른쪽에는 태양으로 통하는 핑갈라가 있고 달에 응하는 이다가 있고 그 가운데 통로가 곧 몸을 종합하는 쑤숨나가 있다 하거니와… 당신, 수미산이란 세계에 대해서도 들어보았겠지요? 수미산에는 그 밑부분 바다 바닥에서 하늘 끝까지 닿아있는 한그루 거대한 나무가 있다 하지요. 그 나무야말로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축이 됩니다. 인간에게 척추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축을 통해서 생명의 힘이 오르내리는 것이라 합니다. 우주는 광막하나 그 우주의 어딘가에는 반드시 어느 곳과 어느 곳을 잇는 생명의 힘이 오고가는 통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막막한 사막 가운데서도 그 어느 곳이 생명의 힘이 오고가는 통로인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

불이는 새삼 놀라고 있었다. 이 강도떼 가운데 이렇듯이 해박한 얘기를 잘라들 하는 것처럼 술술 내뱉다니!

그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죽지 않고 북쪽으로 달려가면 천산산맥이 만년설을 이고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지않고 남쪽으로 달려가면 그곳이 곤륜산맥입니다. 곤륜산은 멀리는 천축(天竺)과 중국을 가로막은 성곽이지만 그 성곽은 하늘 속의 우주를 이루는 설산입니다. 또한 곤륜산은 중국의 모든 물이 그곳에 뿌리를 두고 흐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前漢)시대 이래 수많은 구도승들이 이 천산과 곤륜 사이의 사경(死境)을 헤매이는 동안 그들의 목적 이외의 경지인 생명의 힘을 만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석가모니 이전의 힘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 강도의 말투는 점점 정중해지는 것이었다. 때라서 그의 높은 식견에 대하여 불이도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더구나 그는 불참혀가는 신세인 것이다.

바로 그 신세가 된 불이가 슬적 물어 보았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강도는 여태까지의 말투와는 사뭇 달랐다.

"그런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소…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런 것이야 몰라도 되는 일이오. 한마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거나 지금보다 더 위험한 곳에 밀어넣을 리는 없오."

"고맙습니다."

불이는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일대에서 오래 견디며 살아온 소수민족의 백성처럼 비굴하기까지 한 사의를 나타내었다.

유식한 강도는 그러나 그런 불이에 대해서 마치 그의 수준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듯이 매우 정신적으로 활발해지는 것이었다.

"보시오… 이 모래는 아까와는 다릅니다. 좀 딱딱하지요? 낙타들의 발굽도 여간 좋아하지 않는다오… 그런데 이 일대는 바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산덩이만한 모래언덕도 대번에 휩쓸어 가버린 뒤 그 밑창에서 오래동안 굳어져 있는 사암질(沙岩質)의 물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오… 그런데 바로 그 밑에는 몇천년전에 세워졌던 도시가 매몰된 채 그 도시 전체가 화석이 되어 있단 말이오…."

"…"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강도가 어쩌면 구도승으로 이 타림분지를 건너가다가 강도로 편입되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강도가 강도집단을 '부대'라고 말하고 그 자신을 '대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관심거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낙타의 대열은 속도를 느리거나 재촉하는 일 없이 아주 유유한 걸음걸이로도 어느덧 타림하(河)의 물줄기를 만날 수 있었다.

선두에서 '우우!'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단 정지의 신호였다. 그러자 낙타 대열은 이제까지의 1열종대를 바꾸어 한 무리의 몇줄로 어울렸다. 낙타들도 그런 일에는 길들여져 있는 것이었다.

"수미산에는 바다바닥에서 하늘끝까지 닿은 한그루 거대한 나무가 있다지요… 세계의 중심을 이르는 축입니다" 강도의 말에 불이는 새삼 놀라며 어쩌면 그 강도가 구도승이었는데…

► 69 ◄

낙조가 어둠에 편입될 때 강도집단은 오체투지의 큰 절을 세번씩 했다

이윽고 태양이 서쪽 사막의 지평선으로 넘어간 직후의 그 장엄한 낙조의 나머지가 어둠에 편입될 때 그들은 대장의 뒤를 따라 모래바탕에 오체투지의 큰 절을 세번씩 하는 것이었다.

물론 만화 합두 불이도 그들의 의식(儀式)을 따랐다. 불이는 그들 강도집단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불교의 한 교파와 관련되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여느 강도집단이야 저녁무렵이라고 해서 해가 진 곳에 절 따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불이를 태운 강도 만이 아니라 다른 강도들도 한 가지씩의 기능이나 재능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천막을 아주 능숙하게 치는 털보 강도조차 혼자말을 하는 것을 불이가 재빨리 알아들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번의 공부로는 나한(羅漢)이 되기는 영 글렀어. 그러므로 어서 굴로 돌아가야지. 거기 가서 나한 그림이나 실컷 우러러 보아야지."

바로 이런 말을 불이는 들을 수 있었다.

만화와 합두 그리고 불이들은 불이를 맡은 강도의 감시로 되어 두번째 천막 안에서 밤을 자내게 되었다. 과연 여자라고는 씨도 없는 이 강도집단에서 유일한 여자인 합두는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불이를 맡은 강도가 합두에 대한 배려를 하였다.

"불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것을 흔들어 소리를 내시오. 그러면 내가 깨어날 터이니"라고 말하며 작은 쇠방울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말이나 소에 다는 워낭과도 같았다.

아닌게 아니라 합두가 소변을 볼 때는 강도가 돌아서서 하늘의 별들을 실컷 바라보는 일로써 합두를 아주 편하게 하는 것이었다.

불이가 나직하게 물었다. "굴은 어디입니까?"

"내일은 알 터이요. 어서 자구려."

그림 · 조향숙

藥師經法要集發刊

경에 약사유리광여래의 이름만 들은 인연으로 생사 고뇌를 해탈하면 나고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여러생명을 살생 살해하며 싸우고 고뇌하고 가정과괴하는 유정이 전환되고 정신과 육체와 마음에 고통의 병을 얻거나 고도의 억압을 당하거나 횡액,재사,단명등을 약사여래의 명호만들어도 일체가 전환되며 늙어서 죽음에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원하며 약사여래 이름만 들은 공덕으로 물수, 관음, 대세지무진의, 보단화, 미륵, 약왕, 약상보살등 8보살이 나타나 신통으로 옹호하며 약사도량에서 약사경 의식이없어 일반경으로 약사법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양로원, 유아원, 간병인들은 물론 아기를 낳고 혼례를 치루는 분, 환갑을 하지않고 넘어가는 분 70, 80 ,90 및 부부중 혼자 차리시는 분, 조상 산소, 밀레, 사초, 사찰 신축, 증축 하시는 분들이 법보시품으로 불사를하시면 더욱가치를 받으며 정법이 약하고 탈법은 강한 요즘 약사경을 수지독송 하시여 보시하시어 불국정토에 이바지 하시고 무량공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사유리광여래불

보급처 약사선원
TEL821-6622
923-3110

불교용품 도매상 조계사 앞 연화사
(443쪽,5500원)

六井六庚申道通 기도 안내

祕傳으로 이어 오던 **육경신 도통 기도**가 금년 丙子年 음력 2월 초 5일 入門하여 초 6일 回향합니다. 大道에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믿으며,

六庚申이란 1. 天眼智通 2. 他心智通 3. 天耳智通 4. 宿命智通 5. 神足智意通 6. 漏盡智通 등이 60일에 한번씩 들어오고 1년에 6번이 들며, 여섯 번을 하여야 一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경만 잘 해도 10년 공부를 앉아서 한 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大人이 되려면 마장 때문에 그만 실패하는데 첫째, 수 마장이고, 둘째, 인 마장이며, 셋째, 별 마장에 걸려 못하는 것을 이 六井六庚申 기도를 통하여 마장을 이길 수 있어 자성을 보아 六通에 들어 가는 기도입니다.

泰田居日居士는 저 태양의 오온 육기로써 六庚申 道通에 入門하여 全國各地에서수마와 마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으며, 뜻이 있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동참하시어 이 기도에 입문하신 공덕으로 본인에게 옹호해 주는 신들은 근기에 따라 염력과 성취를 관장하며 특히 이 기도는 예술가 · 음악가 · 서예가 · 도예가 · 철학가 · 풍수지리 및 기술에 대한 전문인들에게 몸과 정신과 마음을 밝게 하고, 大道에 들어 가며 지금까지 배우고 닦은 기량 위에서 六井 六庚申 道通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양력 3월 23일 入門, 3월 24일 회향 (1박 2일)

회비: 5만원

연락처: 약사선원 821 - 6622, 923-3110

선원장 태일 거일 거사

대중불교 3월호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대구 삼영불교사점 / 이승환 회장 · 14
쇠북소리 · 선거와 거짓말 / 임현영 · 10
귀담아 듣고 새겨볼 이야기
"최고급 승복 주문받음"이라 / 김정자 · 12
대중불교시사
서면 인터뷰 - 서석재/추미애/이문옥/조순환 · 48

진단 / 직장직능불교 현황 · 76
취재 · 조계종과 선학원 꼭 갈라서야 하나 · 82

기획 / 극에 달한 종교 편향
한계에 이른 종교갈등과 그 책임 · 38
종교편향, 대통령이 부추긴다 · 42

불교교리 산책 · 유식(2)상식과 유식 / 정승석 · 24
산화일련 · 금강산(金剛山)이야기 / 설산 · 34
우리 절의 신행, 이렇게 한다 · 고통에서 행복으로/ 현장 · 72
해외불교석학열전(3)
알랜 와츠(Alan Watts)/ 정희수 · 94

칼라화보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②분의 향연 / 원성 · 53
구산선문(6)사굴산문 굴산사터 · 54
얼과 문화 · 함평 고막다리 · 60

첫 개인전 여는 석정스님 · 64
해외불교 · 몽골불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김선정 · 86
산천기행 답사기
-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즐거움 · 66

◀3일, 효림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중불교 산천기행'

남한강변의 폐사지와 절들

인연의 땅, 원력의 땅을 찾아가는 대중불교의 산천기행이 답사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배우고 불심을 키워 갈 마음이 젊은 모든 불자를 환영합니다.

- ■가는 곳 - 폐사지의 하일라이트 / 여주 고달사지, 원주 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돈사지, 신륵사, 구룡사 등의 폐사지와 절들
- ■기 간 - 1996년 3월 9~10일(1박 2일)
- ■모이는 곳 - 압구정동 현대 백화점 앞의 주차장 (오후 3시 출발)
- ■참가비 - 55,000원(대학생 50,000원, 초중고생 40,000원)
- ■접 수 - 전화(02)752-7047, 764-1614

은행지로번호 국민은행 008-01-0236-597 김관동(산천기행)